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5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 위생정책팀장 김혜정 ☎440-2761 • 담당자 김선희 ☎440-2762	
사 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음식특화거리’ 활력 불어넣다.**  
 - 침체 거리 재정비로 외식산업 활성화 기여 -  
 - 지주간판 개보수 및 거리 도색·상인회 의견 조율 통해 필요물품 지원 -

인천시가 음식특화거리 재정비를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 및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25개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실태조사 6월 14일부터 7월 2일(3주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비 등이 필요한 6개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군·구 재정비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화 거리를 상징하는 지주간판 개·보수 및 거리 도색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 침체된 음식특화거리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외식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특화거리에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해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 할 예정이다.

해당 상인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필요 물품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음식특화거리 재정비를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 및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객들께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덜어먹기 등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소개는 인천투어(itour.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물탕 업소가 현저히 감소한 부평 해물탕 거리는 음식특화거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번 재정비를 통해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했다.

### 〈 음식특화거리특색음식거리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거리수	24	3	2	3	3	4	1	2	2	4
업소수	1,038	73	15	73	327	242	43	91	115	59